

불치병 고치는 최고 의사: 구세주 하나님 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라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이다. 연초에 세웠던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되었는가 점검해 보는 달이다. 목표는 사람마다 다를 것이다. 그대의 목표는 무엇이며 어느 정도 달성되었는가?

만일 그대가 질병치료를 그 목표로 했다면 어느 정도 목표가 이루어졌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 완치되었는가? 아니면 아직 진행중인가? 만일 아직 완치가 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는가? 혹시 의사를 잘못 만나서 그런 것은 아닌가? 만일 그렇다면 의사를 바꾸어 보기 바란다.

최고의 의사: 구세주

신앙인들조차 자신의 진실한 최고의 의사가 누군지 모른다. 성경은 하나님을 질병을 치료하는 존재로 묘사하고 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라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말라기 4:2)”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신다는 것이다. 흔히 원적외선 치료를 받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질병을 치료하신다는 것이다.

또한 불경에서도 부처님을 대의왕(大醫王)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의사 중의 의사라는 것이다. 약사여래불 또한 약으로 중생의 질병을 치료하는 부처의 이름이다. 열반경은 특히 미륵불



구세주의 몸으로부터 질병을 치료하는 광선이 발산하고 있다

은 감로수로서 중생들의 병을 다스린다고 하였다.

감로가 무엇인지 그 실체를 진짜 미륵불이 출현하기 전까지 그 누구도 알지 못했다. 조희성 미륵불이 출현하여 감로의 실체를 밝히니 유불선 모든 경전에 감로가 설해져 있음을 알게 되었던 것이다.

감로로 불치병 치료한다

불경 열반경 8권에 “或有服甘露(혹 유복감로) 傷命而早夭(상명이조요) 或復服甘露(혹부복감로) 壽命得長存(수

명득장존) - 중략 - 得至於涅槃(득지어열반) 無上甘露味(무상감로미) 不生亦不死(불생역불사)

혹 감로를 먹으면 상한 목숨이 빨리 생명력을 얻어 왕성하게 되고, 혹 다시 감로를 먹으면 수명이 오래도록 살 수 있다. - 중략 - 열반에 이를지니 위없는 감로의 맛은 나지도 않고 또 죽지도 않게 한다.”라고 감로에 대해서 설명되어 있으며, 감로는 불사약(不死藥)이라고 명확히 기록되어 있다.

성경에는 호세아 14장 5절에 하나님께서 이긴자(구세주)에게 이슬(감로)로 함께하신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 감로

가 바로 의로운 해가 발하는 치료하는 광선(말라기 4:2)이다.

격암유록에도 감로가 불로초이며 불사약이라고 말하고 있다. 즉 격암유록 말문에는 감로를 일컬어 “不老不死 長仙之藥(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으며 오래도록 사는 신선이 먹는 약)”, 이라고 예언되어 있다. 또한 해인가(海印歌)에는 “진시황과 한(漢)무제가 구하던 불로초 불사약이 어데 있소. 구름과 안개 가운데 7색 무지개가 있으며, 비와 같은 감로가 바로 해인(海印)인데 불과 비와 이슬, 이 세 가지가 풍성한 해인(海印)이니 극락에 들어가는 입장권이다. 변화무쌍한 도장 인(印)자는 무소불능한 바다의 해인(海印)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 모든 예언들은 감로가 불치병을 치료하는 물질이라는 것이다.

승리제단: 불사영생 실현 장소

감로는 오직 승리제단에서만 먹을 수 있다. 승리제단에는 구세주께서 항상 같이 하시기 때문에 감로가 내리는 것이다. 다른 곳에는 감로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감로가 무엇인지 그 실체조차도 모른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호세아 4:6)”고 말씀하신 것처럼 감로를 모르기 때문에 죽는 것이다.*

금주의 말씀 요절

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한다 <121>

“반대생활을 해야 자존심 마귀가 죽는다”

이제 그대로 반대생활을 해야 자존심마귀가 죽습니다. 과거에는 은혜 받은 얘기, 내가 제일이라고 자랑하는 얘기를 하기 좋아했다면 지금부터는 나의 못된 점, 수치스런 점, 나쁜 점을 말해야 자존심 마귀가 죽습니다. 그래야 영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식사할 때 맛있는 반찬만 집어 먹었습니다. 그렇게 하니 나라는 자존심이 약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졸리면 잠을 안 자고 일을 하다가 쉬고 싶으면 더욱 열심히 일을 했던 것입니다.

말이 그렇지 반대생활을 하기관,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너무나 힘이 들어 쉬고 싶은데도 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음의 경지까지 가서 죽기 직전까지 싸워야 나라는 마귀를 죽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론

지진은 인재,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지진(地震)은 인재(人災)다. ‘천재 지변을 인재라니’ 하며 의아하게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1981년 대한민국에 출현한 메시아(구세주 정도령)가 인간과 우주만물의 생성원인과 그 운행원리 및 존재의 본질에 대한 진실을 밝힌 이후부터는 인재임을 부인할 수 없게 되었다.

인간계상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건 사고와 천재지변에도 반드시 원인이 있다. 다시 말하자면 모든 재앙은 선과 악, 복과 재앙, 삶과 행복, 죽음과 질병을 주관하는 신들 간의 지난한 밀고 밀리는 힘겨루기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메시아 구세주가 출현한 이상, 재난과 고통, 절망 속에 숨겨진 선과 악의 본질을 분명히 파악해야 한다.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인간 속에 공존하고 있는 하나님(선)과 마귀(악)의 본질을 알아야 한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과 응축한 마귀의 계략이 어떻게 인간의 감정을 통해서 화평과 갈등의 목적을 이루는지 깨달아야 한다.

아담과 헤와의 후손인 사람들 속 ‘나’라는 주체영이 바로 선악과인 마귀영이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나를 항상 버려라’, 불경에서는 무아경지에 이르러야 도통을 한다. ‘나를 이겨야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말씀이 유교의 경전에 써여 있다. 이 세상 만물이 신이요, 이 세상 만물이 다 영인고로 만물의 영장이 바로 사람이다. 만영(萬靈)의 영장이 되는 신이 사람인 고로 사람이 확신을 갖고 행하면 천지 만물과 풍운조화 역시 인간의 마음에 따라 변하고 움직이게 되어 있다. 빈

부귀천, 남녀노소 차별 없이 ‘누구든지 내 몸처럼, 내 하나님처럼’ 섬기며 항상 감사한 하나님 마음을 가지면 사시종 평온한 지상천국이 될 것이고, 권력으로 과거의 잘못을 들추어 원망과 앙갚음의 마음이 싹트고 갈등과 분열이 반복된다면 인간의 마성(魔性)이 그 세력을 더해 천재지변을 부르는 이수라장이 될 것이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말이 있다. ‘선무당’은 ‘서투르고 미숙해 곳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무당’이다. 인간의 본성과 세상만물의 본질을 알지 못하는 미완의 종교인, 교육자, 언론인, 의료인 등 각계의 지성인들이 선량한 백성들을 거짓된 교리나 학술, 이념 등으로 세뇌시켜 죽음과 분열의 벼랑으로 인도하는 선무당들이다.

정도령시대에 국가와 정치가 해야 할 일은 실낙원의 상처가 아물고 복락원의 새 살이 돋을 수 있도록 ‘누구든지 내 몸처럼, 하나님처럼’ 섬기며 용서와 화해를 실천, 하나로 화합하는 것이다. 인류역사 6천 년 동안 죽음과 분열을 이끈 주적(主敵)인 ‘나’라는 주체의식을 폐(廢)하는 것이 적폐청산의 시작이요 끝이다. 적폐청산의 정도(正道)는 인적청산이 아닌 의식개혁이다. 허물을 들추는 비리 사찰 공화국(恐禍國)이 아닌 상큼하고 행복한 메시아 출현 소식으로 평창동계올림픽을 찾는 세계만민들에게 영생복락의 웃음꽃을 선사하는 끝판왕이 되었으면 한다.*

안병천 / 승리제단 기획부장

조희성님이 구세주라는 간증

추가 간증 victor.or.kr 참조 / 많이 있습니다.



이영애 권사

조희성님께 2016년 2월 어느 날 꿈에 오셔서 수십 년 동안 아프던 모든 병을 말씀하고 쳐 주셨습니다. 1993년 12월에 높은 곳에서 떨어져서 어깨가 골절되었는데 그때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 후에도 계속 어깨가 아팠습니다. 또한 산후풍으로 손 마디마디가 붓고 아파서 조금 무리하게 일을 하면 통통 부

어서 아무 일도 못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작년 2월 어느 날 꿈에 구세주님께서 오셔서 내 머리 뒤에서 힘줄 같은 것을 꺼내더니 “힘줄이 이렇게 꼬였으니까 아프지” 하시면서 “내가 다 고쳐줄게” 하셨습니다. 꿈을 깨고 보니 그렇게 아프던 어깨 통증도 감쪽같이 사라졌고, 일을 할 때 아프던 손가락 마디마디도 하나도 안 아팠습니다. 정말 기적같은 일이었습니다.

나 같은 늙은이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신 구세주님께 이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김중천 승사

내가 승리제단에 입문한 지 얼마 안 되어 조희성님이 분신으로 내게 나타나셨다. 그때 조희성님은 미국에 전도 여행 중이었는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것이다. 방안에 누워서 이 생각 저 생각하던 중이었는데 조희성님이 커다란 몸으로 나타나서 벽력같은 소리로 말씀을 하셨던 것이다. 난 그분을 뵈

도 없었는데 참으로 신이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또 조희성님이 보광 후 약 5년이 흐른 어느 날이었다. 갑자기 집에 있는 조희성님의 사진에서 당신이 튀어나오더니 내 몸속으로 쑥 들어가는 것이었다. 당시 말씀 그대로 사람 같으나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그 말씀 그대로 놀라운 이적을 보여주셨으니 어찌 이분이 구세주가 아니라 말인가! 당신의 사진을 가지고 다니면 어떤 액운도 다 막아 주신다고 많은 신도들이 간증을 한다. 사실이다. 승리제단에 구세주가 계신다는 것을 모두 알아야 한다.*

승리제단에서는 諸宗教(제종교)의 경전에 예언되어 있는 三神一體一人出된 眞人의 증표인 甘露가 항상 내립니다

삼신일체일인출

진인

감로



본부제단에서 내린 이슬성신



눈에서 내린 이슬성신



평택제단에서 내린 이슬성신

이슬성신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호세아 14:5)이라 빛의 형상(요한복음 1장)으로 나타난다. 구세주를 진심으로 따르는 승리제단 신도들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구세주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슬성신이 카메라에 잡힌다. 영안이 열린 사람은 이슬성신을 볼 수 있지만 죄인의 눈에는 안 보인다. 대신 죄가 없는 카메라 렌즈에는 찍히는 것이다.

본지 지남호는 승리제단 홈페이지 www.victor.or.kr에서 볼 수 있습니다.